

물발자국

03. 물발자국 개념의 정책적 도입과 활용방안



I 물발자국 개념의 정책적 도입

1. 수자원관리 정책의 지속성 평가 도입¹⁾

물발자국의 개념은 다양한 측면에서 그 적용성이 매우 높다. 제품의 생산 전 과정에서부터 소비자, 생산자 및 비즈니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의 지속성평가가 가능하다.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 수준에서의 적정한 물 이용이 미래 세대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자원의 환경·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분쟁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활용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환경·사회·경제적 핫스팟을 규명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열쇠가 물발자국을 적용한 지속성 평가에 있다. 핫스팟은 한 해의 특정 기간에 물발자국이 지속불가능한 특정 집수구역을 말한다. 즉, 환경적 물 수요나 수질기준을 절충하거나 집수구역 내의 물 할당과 사용이 불공정한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핫스팟 안에서는 물 부족과 오염문제 때문에 물발자국이 지속불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별 수자원관리 정책의 목표나 지향점이 설정될 수 있다.

핫스팟을 규명할 때 집수구역과 유역 전체만을 고려한다면 세부 집수구역(< 100 km²)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핫스팟을 찾기 못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작은 집수구역에서 핫스팟을 찾는다면 큰 집수구역이나 유역 전체의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핫스팟을 규명할 수 있다. 그 예를 살펴보면, 유역 전체는 상당량의 폐기물을 정화하는 능력을 가지지만 유역 내에서 대부분의 오염이 집중되어 있는 주로 상류 세부 집수구역에서는 핫스팟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렇듯 핫스팟을 규명한 후에는 환경·사회·경제적 영향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먼저, 1차 영향은 변화한 물 흐름과 수질이다. 예를 들어, 한 집수구역에서 사람들의 청색 물발자국 사용으로 인해 얼마만큼의 지표수가 감소했고 어느 정도 환경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2차 영향은 1차적 영향의 결과로서 집수구역 내에서 손상된 생태계, 사회, 경제적 상품과 서비스들이다. 이 영향으로 인해 멸종된 종, 감소된 생물의 다양성, 감소된 식량안전보장, 침범된 인간 건강, 물 의존 경제적 활동으로부터 감소된 수입 등의 측정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물발자국을 이용한 지속성 평가는 진일보한 수자원관리 정책으로 제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가상수 개념의 적극적인 정책적 도입이 중요한 것은 가상수를 고려한 수자원 계획 및 정책 방향 제시, 수자원 재분배에 의한 산업구조 개선 등 가상수 적용에 의한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예방하거나 저감할 수 있었던 여러 국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국가에서 1970년대부터 경험한 극심한 물 부족으로 인해 농산물의 국제무역이 활발했는데, 대수로 건설을 통한 식량자급자족 정책을 탈피하여 농산품을 보다 싼 가격으로 국제 농산물 시장에서 구입함으로써 농업용수 사용량을 줄이고 식량문제를 해결하였다. 나일 강 연안 10개의 국가들 중 이집트는 정치·경제·군사적 우월성을 앞세워 상류 국가의 대형 댐 건설을 저지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막대한 가상수 수입으로 국내 곡물 소비를 충족하여 상류 국가의 수력발전용 댐 건설에 대해 이전에 비해 큰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국제 가상수 교역이 나일 강 주변 국가들의 수자원 확보를 위한 물 분쟁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한 정치문제와 연관된 요르단 강의 물 분쟁은 요르단 강의 가용 수자원의 분배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갈등이 수반되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상수 교역을 통해 각국이 농업용수 사용을 줄이고 가상수량을 늘린다면 물 분쟁원인이 제거되어 요르단 강을

1) 본 내용은 홍일표 외(2009), 「국제 가상 물 교역과 수자원정책 전망 연구」 pp.31-48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구성한 것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더 나아가 정치적 긴장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의 경우 산업구조 변화를 통해 물의 재분배와 이용 효율성을 높인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해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시작하여 농업 분야 의존도가 낮아졌고,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를 통해 절약된 농업용수가 생활용수와 2, 3차 산업으로 재분배되면서 1980년대까지 제조업을 통한 경제, 사회발전을 이룩하고 현재의 3차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를 완성했다. 이와 같이 가상수를 포함한 포괄적인 양적 관리의 틀을 물발자국 개념의 도입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2. 환경평가에 있어 사업별 적용

물발자국 평가는 담수 부족과 오염의 문제를 다룬다. 물발자국 평가는 집수구역이나 유역 내의 담수의 양이나 질에 대한 인간 활동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 매우 적합하다.

물발자국은 경쟁적인 물 사용과 물 오염을 고려하는 물 사용의 지표이다. 집수구역의 관점에서 이것은 흥미로운데, 집수구역 안에선 담수 유용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녹색, 청색 그리고 회색 물발자국은 인간 활동들이 어떻게 이 제한된 물자원을 사용하는지 보여준다. 또 하나의 물 사용의 유용한 지표는 '청색물 회수'라는 고전적 지표이다. 청색물 취수에 대해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는 집수구역의 관점이 아니라, 물 사용자의 관점에서 물 균형의 모든 요소를 파악함에 기여한다. 따라서 골프장 사업과 같이 지속적으로 물의 사용이 누적되는 경우, 특정 집수구역에서의 물발자국 지속성 평가는 매우 유용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영향평가에서는 운영시 누적되는 물의 사용에 대한 영향분석이 시행되지 못해 사회적 문제점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업이나 대규모 산업단지 및 주거단지의 개발은 지속성 평가에 준하여 개발의 규모를 한정하거나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 청색 물발자국 또는 회색 물발자국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물 이용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기법의 개발은 환경평가에서 추후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정책 이행 수단이다.

특히 회색 물발자국의 경우, 어떻게 천연 그리고 최대 허용 농도를 정의할 것이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것이 도전과제이다. 가이드라인은 특정화된 화학물질의 목록을 위해서 '0'을 천연 기본 값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언할 수 있고, 집수구역 내 해당하는 물질의 값이 없을 때 다른 화학물질과 비교하여 어떻게 가정을 세워야 하는지 권고할 수 있다. 환경평가에 이를 적용할 때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이슈는, 예를 들어 일별 혹은 월별 평균 농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하는가이다. 모든 물질의 주변 수질의 최대 허용 농도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런 경우, 어떤 기준 값이 사용되어야 하는지 조언할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

3. 물발자국 개념의 환경라벨링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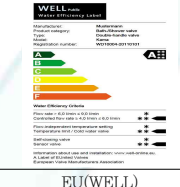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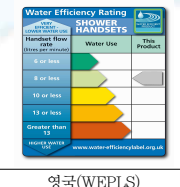
환경라벨링 가운데에도 자원으로서의 물을 효율적으로 이·활용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라벨링이 있다. 물 환경라벨링은 수도꼭지, 변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비데, 세차 서비스 등과 같은 물 사용 제품이 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를 중심으로 라벨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 라벨링은 자원으로서 '물'만을 다루므로 '싱글이슈 라벨링'에 속하며, 제품 전 과정이 아닌 제품 사용단계에서의 물 사용량을 중심으로 라벨을 부여하고 있어 엄밀한 의미의 ISO에서 분류하는 제1 유형 또는 제3유형의 환경라벨링으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물 사용 제품의 경우 제품 사용단계가 제품 전 과정에 걸친 총 물 사용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들 라벨링을 ISO

의 환경라벨링에 버금가는 중요한 환경라벨링으로 보고 있다.²⁾

물 환경라벨링은 호주, 뉴질랜드, EU, 영국, 중국, 싱가포르, 홍콩,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들 물 환경라벨링은 일정 수준 이상의 물 절약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인증하는 '우수 물 절약 제품 라벨<그림 3-1>'과 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등급화해 알려주는 '물 사용 효율 등급 라벨<그림 3-2>'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 (WaterSense)	중국 (절수인증인증)	영국 (Waterwise Marquee)	영국 (WEPLS)

<그림 3-1> 각국의 우수 물 절약 제품 라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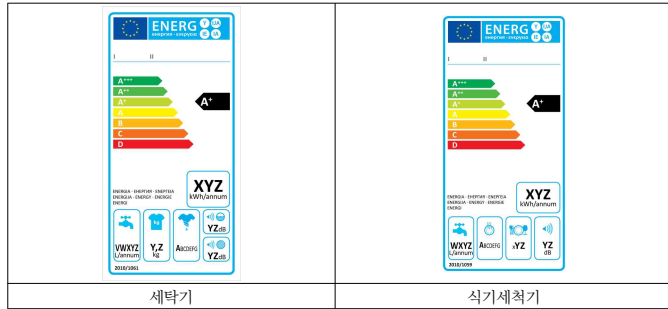
		
호주, 뉴질랜드(WELS)	호주(Car Wash WSR)	싱가포르(WELS)
		
홍콩(VWELS)	EU(WELL)	영국(WEPLS)

<그림 3-2> 각국의 물 사용 효율 등급 라벨

물 환경라벨링은 대부분 제품의 생산·판매 기업이 라벨을 인증받기를 원하는 경우 인증을 신청하는 자발적 환경라벨링이다. 하지만 호주, 싱가포르와 같은 물 부족 국가에서는 물 사용 기기의 '물 사용 효율 등급'을 강제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소 효율 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은 시판하지 못하게 해 일종의 강제 환경라벨링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 밖에도 다른 속성의 환경라벨에 물 사용량 등을 병기하는 형태의 라벨링도 등장하고 있다. 한 예로서 유럽연합의 에너지라벨(EU energy label)을 들 수 있다<그림 3-3>. 에너지라벨은 백색가전 등 모든 에너지 사용 제품에 에너지 효율성을 라벨로 표시하는 제도다. 에너지 사용 제품 가운데 세탁기, 식기세

2) UNOPS(2009), *A guide to environmental labels for procurement practitioner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pp.11-12

척기와 같은 물 사용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표준 사용 시나리오에 따라 산정된 제품 사용단계의 물 소비량을 라벨에 병기하고 있다.³⁾



<그림 3-3> 물 사용 제품에 대한 EU 에너지라벨

II 물발자국 개념의 정책적 활용

좋은 물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은 현명한 물관리의 일부분일 뿐이다. 현명한 물관리는 지속가능한 수자원 사용의 목표가 다른 정책 분야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부가 고민하고 이를 반영할 것을 모든 부처에 요구하는 것이다. 정부의 담수자원 사용 목표는 그것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평등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게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정부의 물 정책뿐만 아니라 환경적, 농업적, 상업적, 에너지, 무역 그리고 외교 정책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여러 다른 분야의 정책에 반영된 물관리 기조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좋은 '물 정책'은 상승효과를 유도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관성은 각기 다른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고, 이는 소규모 지역부터 전국적 수준까지, 그리고 국제적 협력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농업에서 제대로 된 물 가격 책정 구조를 실행하는 국가적 정책은 국제적 맥락에서 다른 국가들이 비슷한 정책을 개발한다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실패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불공평한 경쟁의 위험 때문이다. 또한 제품의 투명성을 얻는 것도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데, 이는 많은 물 집중 상품의 공급망이 실제로 국제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적 변화는 물발자국 개념의 발전으로 가시화 되고 있으므로 가상수 등의 개념을 도입하는 물 관리는 수출 중심 국가인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전통적으로 국가들은 어떻게 물 사용자들을 만족시킬지에 초점을 두고 국가적 물 관리 방안을 구축한다. 요즘은 국가들이 물 공급을 늘리는 옵션에 추가로 물 수요를 줄이는 옵션도 고려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물 관리의 세계적 범위를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이러한 까닭에 그들은 물 집약적인 제품의 수입으로 물을 절약하는 옵션을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자국 내의 물 사용만을 살피므로써, 대부분의 정부들은 국가적 소비의 지속성 이슈에 대한 판단적 시각지대를 갖고 있다.

3) Europe's Energy Portal(<http://www.energy.eu>); The European Appliance Labelling Programme (http://www.un.org/esa/sustdev/sdiissues/energy/op/clasp_lebot.pdf)

실제로 많은 국가들은 수입품들이 생산 국가의 물 고갈이나 오염에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지지 않은 채 그들의 물발자국을 상당히 외부화시켜 왔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소비자 제품의 생산을 위해 소비자와 산업계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적 물발자국 산정은 국가적 물 체계의 기본 요소가 되어야 하며, 환경, 농업, 산업, 에너지, 무역, 외교, 그리고 국제 협력에 대한 국가 정책과 일관되는 국가적 수자원 및 유역 관리방안을 구축하는 기반으로 물발자국 개념을 도입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물발자국과 가상수 무역 산정은 다양한 종류의 정부 정책 구축에 적절한 물 투입량의 고려를 가능케 할 것이다. 이러한 가상수 산정 정책은 유역 정책, 환경적 정책, 농업 정책, 산업/경제 정책, 에너지 정책 등에 반영될 수 있다. 물발자국 감소를 목표로 하는 정부 전략의 주요 요소들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물에 대한 의식 고취, 경제 모든 분야에 물 절약 기술 촉진, 물 투입의 총비용이 최종 제품의 비용 일부가 되도록 하는 물 가격 책정 방법의 재구성, 공급망 전체에 제품 투명성의 증진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지속불가능한 물 공급을 바탕으로 한 경제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 요소들은 모두 분야간, 그리고 대부분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문제들이다. 물발자국을 줄이고 연관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도입과 활용방안에 있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국가적, 유역적, 그리고 지역적 수준의 물 정책에는 지식 기반을 넓히기 위한 국가적 물발자국 산정 방법을 책정해야 한다. 또한 국가적 물 및 유역 관리 방안의 구축을 지지하는 물발자국과 가상수 무역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제공해야 한다. 물 생산성을 확대하는 기술을 증진하여 생산 단위당 물발자국을 축소함으로써, 모든 분야에 사용자 수준의 물 사용 효율성을 높이고 유역 유도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장 높은 사회적 이익을 갖는 일에 수자원을 할당하여 유역 수준에 물 사용 효율성을 높이고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는 제품들을 생산하도록 국내의 사용 가능한 수자원의 할당을 촉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적 물 절약을 위해 가상수 수출을 줄이는 동시에 가상수 수입을 늘림으로써 국가 내 물발자국을 줄이는 노력을 시행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가적 물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외부적 물발자국을 줄이고 물발자국 산정 데이터베이스와 물 인벤토리를 확립하여 관리 주체를 일원화해야 한다.

국가적 환경정책은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해 국가 내 물발자국에 대한 집수구역 단위의 축소 목표를 세우고, 영향이 가장 큰 핫스팟을 규명하며, 집수구역 목표 달성에 관련된 분야를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해 국가적 소비의 내·외부적 물발자국 감소를 위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핫스팟에 집중하여 명시된 제품 범주와 경제적 분야로 목표를 설정한 후, 자연보호와 생물의 다양성 보존을 위해 청색과 녹색의 환경적 물 수요로 전환하고 환경적 물 수요를 유역 계획으로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소비자, 시민사회단체와 협동하여 생산자, 농부, 그리고 기업 리더들의 '물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체적인 식료품 사슬에서 낭비를 줄이는 가시적인 목표를 세우고 적절한 방법을 구축하는 것은 수환경정책에 긴요한 사항이다.

정부는 물발자국 개념의 도입을 라벨링제도와 연계함으로써 실질적 효과를 이룰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세계 각국에서 활용하는 물 환경라벨링은 제품 전 과정이 아닌 제품 사용단계에서의 물 사용량을 중심으로 라벨을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제품 전 과정 중 사용단계에서의 물 사용량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품에 대해 "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매우 효율적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물 환경라벨링만으로는 물(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곤란하다. 첫째, 물 환경라벨링을 통해 제공하는 '제품 사용단계에서의 물 사용량 정보'는 수도꼭지, 샤워헤드, 변기, 비데, 세탁기, 식기

세척기 등 몇 가지 물 사용 제품군에서만 유용할 뿐, 식료품을 비롯한 많은 소비자 제품에 대해 전 과정에 걸친 물 사용량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다시 말해 현재의 물 환경라벨링은 제품을 제조·유통하거나 폐기할 때 소비되는 물과 같이 제품의 배경에 숨어 있는 물 소비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둘째, 물 환경라벨링은 생활용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서는 유효하나, 공업용수나 농업용수와는 관련이 없다. 물 환경라벨링 대상인 물 사용제품은 해당 제품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 생활용수를 사용하도록 고안된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물은 생활용수 외에도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으로도 쓰이며, 생활용수로서 사용되는 물의 양은 전체 용수 가운데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제품의 전 과정에 걸쳐 소비되는 모든 물의 양을 산정하는 '물발자국의 개념 도입과 활용'이 필요한 것이다. 즉, '물발자국'은 제품 사용단계에서의 눈에 보이는 물 사용량뿐만 아니라 제품 전 과정 중 감춰져 있는 물의 소비나 오염을 가시화하고 전체 물 소비량을 수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제안된 지표라 할 수 있다. 물발자국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인 동시에 새로운 평가 도구이다. 세계의 담수자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아래, 물발자국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소비자와 생산자 그리고 개별적인 공정들과 제품들이 이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유용한 지표이다. 물발자국 평가는 물발자국을 수량화하고 지속가능 여부를 평가하고, 필요한 곳에서 물발자국을 줄이는 조건을 규명하는 유용한 도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발자국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할당과 사용이라는 매우 넓은 테마에서 한 개의 지표일 뿐이다. 그러므로 물발자국 평가는 사회와 환경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라는 사실도 주지하여야 한다. 물발자국 평가는 따라서 부분적인 도구이며, 결정을 내릴 때 관련된 이슈들의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다른 분석적 방법과 함께 쓰여야 한다. 인류에 의한 담수 책정의 포괄적인 지표로서 물발자국의 채택은 담수 부족을 정부나 기업의 현안 중 우선순위에 놓는 데 유용하지만, 단순화에 따른 위험성도 존재함을 인지하여야 한다. 정부와 기업에서는 복잡한 현실을 아주 제한된 수의 지표들로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정부는 '국민총생산'의 단 하나의 지표에 기업에서는 '이익'이라는 하나의 지표에 주의가 쏠려 있다. 더 광범위하게 말하면, 정부는 일반적으로 제한된 수의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경제적 지표에 초점을 맞추지만 경제적 지표의 하나인 국민 총생산에만 집중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물발자국의 개념이 적용된 지표만으로 환경적·사회적·경제적 핫스팟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물발자국 분석으로부터 얻은 통찰력은 정통한 결정과 관련된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언제나 다른 연관된 환경·사회·제도·문화·정치 그리고 경제적 통찰력과 통합되어야 한다. 인류의 물발자국을 줄이고 재분배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요소지만, 다른 요소들도 중요하다. 물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기술적, 제도적, 정치적, 소통적, 경제적, 법적 방법을 적용할지 전략을 구축할 때, 모든 다른 주요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주지할 사실은 물발자국 평가는 제한된 담수자원의 관점에서 담수 사용 분석에 초점을 둔다는 점이다. 이는 다시 말해 다른 환경적 주제, 즉 기후변화, 광물 고갈, 서식지의 분열, 제한된 토지 유용성 또는 토양 악화를 다루지 않으며, 가난, 취업 또는 복지와 같은 사회적이나 경제적 주제도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발자국 평가는 담수자원의 사용이 생물의 다양성, 건강, 복지 또는 공정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한에서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이슈를 다룬다. 명백히, 더 넓은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이슈에 관심이 있을 경우, 담수보다 더 많은 요소들이 여러 역할을 한다. 필요한 곳에서 인류의 물발자국을 줄이는 것은 더 광범위한 다른 문제들의 맥락에서 봐야 하는 하나의 도전과제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4) '자동차 자동차세차 서비스' 와 같이 정형화된 서비스 포함

기업은 그들의 '물 위험'에 점점 더 많은 흥미를 보이고 있다. 기업의 물발자국 평가는 기업의 물발자국 중 어느 요소가 지속불가능한지 보여줌으로써 위험의 일부를 이해하도록 돕지만, 하나의 물발자국 평가 결과가 전체적인 위험 평가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회사의 물발자국의 지속불가능한 요소들은 기업의 물질적, 평판적 그리고 규제적 위험을 암시하고, 이는 회사의 사회적 존립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전체적인 물 위험이 관심의 핵심이라면 물발자국 평가를 실행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이를 극복하는 해결방안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인지되어야 한다.

정부는 공공 자원을 관리하는 데 막중한 책임이 있다. 지난 몇십 년간, 서로 다른 거의 모든 정책 분야에서 전체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필수라고 여겨지는 통합된 접근법들이 중요하다고 인식되어 왔다. 물관리 분야에서는 통합된 접근법이 '통합된 수자원관리(IWRM)'란 용어로 알려져 있고, 이것이 특정 집수구역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 '통합된 유역 관리(IRBM)'라고 알려져 있다. '물발자국 평가'는 IWRM이나 IRBM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IWRM과 IRBM의 지식 기반을 넓히는 것을 돕는 분석적인 지표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선진화된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정책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환경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물발자국 한국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국제적인 대응에 단일 창구를 마련하고, 국내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